

목장교회 나눔지

2019. 4. 5.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10분)

-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보완해주는가?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과 경배(5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찬송가 31장	1.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 예수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2.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3.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3.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 한 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 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0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런교회되게하소서(5) “죽었는가, 살았는가”

설교내용

A.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B. 말씀요약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신과의 싸움, 타인과의 경쟁, 이웃과의 연쟁과 갈등, 그리고 인류의 전쟁까지 싸움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싸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도 나름 존재한다. 군이 예를 들자면 백혈구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백혈구는 혈류를 타고 온몸을 순회하면서 혈액 중에 침입한 외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몸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병원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도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영적 싸움은 모두에게 싸워야 할 것인 동시에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교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데교회는 건물로 존재했다. 교회임을 교회 성도들과 외부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교회 내에서 예배도 드린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확신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면,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언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사데 교회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때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존경받고 칭찬받고 많은 공로를 끼칠 정도로 수고하였다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은 받았지만,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외면받고 책망받는 교회였다.

주님은 짧게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큰 심판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회개할까. 우리는 때로는 속기 쉽다. 다수의 교역자와 최첨단 기술이 녹아 있는 교회, 편리한 교회, 따뜻한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라고 말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다. 선행도 하긴 한다. 다만 건성으로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같이 대쪽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가식쟁이) 하셨다. 냉담한 교회는 아니었는가. 후시 정죄하는 데 익숙한 것은 아

니었는가? 영적으로 잠든 교회, 기도 소리가 죽은 교회, 전도가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지금 사데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희미하나마 정신줄이 호흡이 붙어있는 상태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얼마 갈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더럽힘 받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 몇이 있다고 하신다. 희망적이다. 이기는 자-이와 같이 세상 친화적인 교회에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는-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또 주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믿는 자들이라 시인하신다고 하셨다.

주님은 사데 교회에 말씀하시며,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다. 도둑이 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는가?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깨어있는 사람-사데교회와 같이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아닌-은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인정을 받기 어렵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애쓰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다. 죽어가는 자, 잠든 영혼을 살리는 싸움이다. 그 싸움을 마친 사람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에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

나
가
만
제
만

사데교회가 칭찬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
눔
1

‘살았다 혹은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나
눔
2

회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나
눔
3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

- 담임목사님의 영육의 회복과 재충전, 새 비전과 확신가운데 거하시도록.
- 봄맞이 대심방을 위하여
- 육신과 영적 연합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 김낙기안수집사 : 평안과 영육의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 주시도록.
- 박태식집사 : 콩팥과 허리의 치유와 고통의 회복을 주시도록.
- 정기현권사 :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

[교회 광고]

- ① 큐티 동역자 100명 세우기 II 올 한 해 100명의 큐티동역자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모든 목장에서는 큐티를 구입하여 나누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목원들을 가입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매일 새벽 묵상시 1-2줄 답글을 달아 서로 독려하는 일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교사 및 찬양대원 모집 II 영유치부/어린이부/청소년부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반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 간식준비, 예배 준비를 돕는 일입니다. 많은 헌신이 아닌 주일 예배 헌신이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할렐루야 찬양대는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일시적 단기적 찬양대원 및 지속적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섬김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봄맞이대심방 II 4/13(토) 민들레목장.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 - 주기도문

[목장별 사역메모]